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“수학여행시 유의사항” -김해 분성여고-

(고국의 어느 여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떠나며 학생들에게 알려준 주의사항입니다. 이런 인간미 넘치는 선생님과 함께 마음 맑아지는 수학여행을 다시 한번 떠나고 싶습니다. 아직도 경주에는 ‘불국사여관’이 있을런지...)

1. 버스 이용시 주의사항

- \*차창 밖에 손이나 머리를
  - ①내밀지 않는다 ②내밀다 크게 다쳐 수학여행비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간다
- \*자기가 타고 있는 버스의 번호를
  - ①정확히 기억한다 ②잊어버려 선생님께 핸드폰을 한다 ③그냥 운다
- \*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
  - ①속히 제자리로 승차한다 ②나 때문에 운전기사아저씨께 욕먹고 우리차가 제일 꼴찌로 가게 한다
- \*다른 학생과 임의로 버스를
  - ①바꾸지 않는다 ②바꾸어 모두 출발을 늦게하고 나는 욕먹고 오래 산다
- \*버스 안에서 멀미가 나면 자세를 편히 취하고 깊이 호흡하거나
  - ①옆 친구 바지에 토한다 ②비닐주머니에 토한다 ③그냥 삼킨다

2. 안전사고 예방

- \*위험한 곳은 ①가지 않는다 ②가서 병원에 실려간다
- \*여행 중 발생하는 사소한 일이라도
  - ①선생님께 알린다 ② 땅에 대고 소리치거나 흘러가는 바람에 이른다
- \*일행과 떨어져
  - ①허락없이 개인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김해까지 혼자 울면서 온다
  - ③낮선 곳에 혼자 남아있음을 알고 졸도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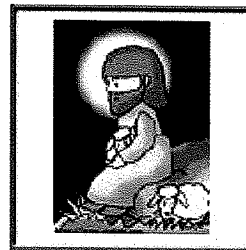
3. 숙소에서 주의 사항

- \*저녁 식사후 밖으로
  - ①나가지 않는다 ② 나가서 거리를 방황하다가 지역 광패에게 얻어 맞는다
- \*귀중품과 과도한 현금은?
  - ①아예 가져오지 않는다 ②소지하다가 잃어버려 기분 망치고 친구들을 서로 의심케하고 의리를 상하게 한다
- \*각 조가 쓰는 방안
  - ①철저히 청소한다 ②지저분하게 써서 모두 돼지가 된다
- \*향락용품들
  - ①가져와 놀다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잠 못들게하고 새벽에 오리걸음등의 훈련을 받게한다
  - ②아예 가져오지 않아 우리 반과 분성인의 명예를 드높인다
- \*다음중 향락용품이 아닌것은  
(담배.술.화투.트럼프.마약.본드.가스.시집.성경책)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삼과 교회의 주인	2004년 교회생활: “바보 같은 교회” <b>갈보리교회</b>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제6권 49호	기초성경공부이수, 정장으로 예배, 남 이야기 금지	2004년 12월 5일
☎369-5077/525-3858 .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 calvary.byus.net		

후 회

김 성 국



아직 오십 줄이 먼 나이인데  
지난 설교들이 부끄러워진다.  
  
악다구리 해야 사는 시장바닥에서  
말씀 지키며 살지 못했다며  
심자가 앞에서 눈물 흘릴 주변머리도 없어  
눈물보다 진한 부끄러움에  
목사 눈 마주치지 못하던 그 아픔을

자기 마음 하나  
붙잡고 가기도 버겁던 젊은 목사가  
조금이나 알기나 했을까

주일성수 안 하면  
믿음 없는 성도라고 외칠 때  
상사 눈치에 밤늦게까지  
회식 따라 다니다  
눈에 핏발까지 생겨  
늦잠 자는 게 소원이라던 그 아픔을  
월요일이면 주일의 노동에  
편히 쉬어야 한다며  
주일 밤을 설레며 지새우던 젊은 목사가  
조금이나 알기나 했을까

술 먹지 말라며 외칠 때  
상사의 비아냥거림을  
처자식 생각해 가슴에 묻고  
술이라도 취한 척 울분 토해내고  
아직 술 냄새 가지지 않아  
목사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  
교회마당 멀리서 목례만 하던 인사의 의미를  
어른 목사님의 작은 핀잔에도 억울하다며  
술 먹으면 목사인생 끝장이기에  
기도밖에 할 게 없던  
강제된 거룩에 싸여있던 젊은 목사가  
조금이나 알기나 했을까

아직 오십 줄이 먼 나이인데  
지난 설교들이 많이 부끄럽다



◀그땐 그랬지▶ 소풍, 나팔바지에 고고춤  
70년대, 학교 소풍을 가면 친구들중 조금 노는 애들은 나팔바지 교복에 고고춤으로 해방감을 만끽하였습니다. Portable 전축을 크게 틀어 놓고 선생님들의 눈이 안 미치는 곳에서는 으레 이런 춤판이 벌어졌었습니다. 선생님들도 그날만큼은 눈 감아 주신거죠. 영화 '토요일밤의 열기' 이후 고고춤이 디스코로 바뀌어 유행하자 다음 소풍때는 하늘을 찌르는 춤을 추던 그때의 친구들, 지금은 모두 무얼하는지 보고싶습니다

# 주 일 예 배

(\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 광 송 Gloria	Calvary	다 갈 이
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 도 자
*찬 송 Hymn	24장	다 갈 이
*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	56 (강림절 2)	
신 앙 고 백 Apostle's Creed	사 도 신 경	
교 회 소 식 Welcome & Announcements		
주 일 학 교 Sunday School		아 동 부
찬 송 Hymn	188장	다 갈 이
기 도 Prayer		최재학 안수집사
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	누가복음 12:49-53	인 도 자
성 가 대 찬 양 Choir		나무십자가 성가대
설 교 Sermon	"예수님의 오심(2)" 불을 지르러 오심	김성국 목사
찬 송 Hymn	122 장	다 갈 이
헌 금 기 도 Offering Pray		인 도 자
응 답 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	다 갈 이
축 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(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)

◆12월의 예배위원◆

◆11월의 교회력◆

일자	주일기도	헌금위원	주방봉사	주 일	예배와 모임
5	최재학	김삼영	3구역	5	대림절(2)
12	김교섭	김선영	4구역	12	대림절(3)
19	김영길	김심홍	5구역	19	대림절(4)
26	김순자	김인희	6구역	26	송년주일

' 2004년 교회표어 “바보같은 교회” (창6:22) *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. 그래도 살아본다 *누구나 평등하다.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	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*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
---	---

주일예배: 낮 12시 | 수요일예배: 저녁 7:30 | 아동, 학생부: 주일 낮 12시 | 청년부: 토 저녁 7시

- 교우소식  
<등록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>  
\*송의수, 이성희 성도(3남여선교회), 범수(청년부), 초롱(아동부)  
☎834-0533 ☒ 8 Piriti Rd. Te Atatu Peninsula
- 선교회 총회 결과를 알려주십시오
- 세례자 모임  
<일시> 19일 주일예배 후 <세례식> 12월 25일 성탄예배
- 당회 <일시> 7일(화) 저녁 7시 교회
- 수요일예배 : 매 수요일 저녁 7:30pm  
\*방학한 자녀들과 함께 교회오는 저녁예배길, “어린이 수요성경 이야기방”을 운영 합니다(성경 비디오)  
\* “찬송과 말씀의 수요부흥회” 를 위해 ‘수요찬송팀’ 의 봉사를 기다립니다
- 제1남선교회 주관 친교모임(전교우 대상)
  - 낙시대회 <일시> 11일(토) 오전 10시 <장소>  
\* 요즘 어떤 종류의 고기가 잘 잡히는지요? 설교준비 부지런히 해놓고 따라가보고 싶은데 준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
  - Golf 모임 <대상> 전교우(남여) <주관> 제1남선교회 <일시> 18일(토)  
<장소> Takapuna Golf Club  
\*참석원하시는 교우는 Deposit를 위해 오늘 신청바랍니다(총무:최득수 집사)

◀착한 시인들▶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김춘수 다뉴브 강에 살얼음이 지는 동구의 첫겨울 가로수 잎이 하나 둘 떨어져 뒹구는 황혼 무렵 느닷없이 날아온 수 발의 소련제 탄환은 땅바닥에 쥐새끼보다도 초라한 모양으로 너를 쓰러뜨렸다. 바싹진 네 두부는 소스라쳐 삼십 보 상공으로 뛰었다. 두부를 잃은 목통에서는 피가 네 낮은 거리의 포도를 적시며 흘렀다. - 너는 열세 살이라고 그랬다. 네 죽음에서는 한 송이 꽃도 흰 깃의 한 마리 비둘기도 날지 않았다.	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며 형 가리 의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던 모습이 새삼 떠올 랐습니다. 철 없던 시절에는 표현된 사실이 끔찍하기까지 했는 데 살아가면서 인간의 사 악함과 자유, 정의라는 고귀 함을 동시에 시 속에서 만 날 수 있었습니다. 지난 월요일 타계한 시인 의 소식을 접하며 “꽃”과 함께 다시 읽어본 고교시 절의 교과서 시 한수.
---	--